

일주문



마하출라롱콘대학교와 자매 결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법산 스님은 9월 10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동국대 불교대학과 태국 마하출라롱콘대학교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다.



제3회 금강산림대법회 개최 순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경내 사자루에서 '제3회 금강산림대법회'를 불행한다.(061)755-0108



월산대중사 10주기 추모법회 보은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9월 15일 성립당 월산대중사 10주기 추모법회를 불행했다. 월산대중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과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명절차례 특강·시연법회 개최 열린선원 원장 법현 스님은 9월 18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열린선원에서 명절 차례 특강 및 시연 법회를 불행했다. (02)386-4755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차집 대한가수불자회 김홍국 회장은 9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마포 불교방송국 지하 다보커피숍에서 소년소녀가장 돕기 일일차집회를 개최한다.(02)713-2905

“인문학의 출발은 인간에 대한 호기심”

서울대 강단 떠나는 오세영 교수... 정년퇴임 기념 강연 가져

오세영 교수(한국사인협회 회장·사건)가 강단을 떠났다. 서울대에서 23년간 봉직하던 오 교수는 9월 11일 오후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을 끝으로 학교에서의 강의를 마쳤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문인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의 제목은 '인간학으로서의 문학'.

오 교수는 순수인문학의 쇠퇴를 걱정하는 시대 흐름을 지켜보면서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순수인문학의 중요성을 절기차게 강조해왔다. 군부시절 최후탄 가스카 캠퍼스를 뒤덮은 상황에서 순수문학 강의를 고집하며 학생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던 오 교수였기에 마지막 수업에서 뿜어내는 순수인문학에 대한 호소는 처연하고 아름다웠다.

"이름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에 대해 나는 관심을 덜 갖거나 갖지 않게 된다. 시인은 이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인문학의 출발이 사물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과 다를 것이 없다. 오 교수는 "인문학의 진정한 출발은 인간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이성적

판단"이라며 "인간과 공동체, 인간 삶의 환경 등을 시간(역사)과 공간(철학)의 축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도외시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본능적 호기심을 초월해 지적 호기심이 충족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고 그것을 알아낸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예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학은? 오 교수는 "모든 학문은 논리적 진리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문학은 모순의 진리를 추구한다"며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문학은 모순의 진리를 통해 역사와 철학의 축에서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을 중심에 둔 창작과 학문적 접근에 많은 무게를 실어 왔던 오 교수는 "정년퇴임이 보다 깊은 창작의 세계와 학문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단과 학계에 더 푸른 활동을 예고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육천사암련 4대 회장에 혜철 스님



충북 육천사암련협회 4대 회장에 혜철 스님이 취임했다. 9월 11일 육천사암련에서 열린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부교주 총무원장 원해 스님과 혜봉 스님, 한양대 육천군수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혜철 스님은 "대 사회 운동 확대와 신도회 활동 강화, 군경 포교 활성화 등 10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승종 하계 종도수련법회 성료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청하)은 9월 4-6일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2007년도 하계 수련대법회를 불행했다. 종각 스님은, 총무원장 청하 스님, 총회위원장 도일 스님을 비롯한 임원진과 종도 1200여명이 참석했다. 청하 스님은 법어를 통해 "종도교육은 종단통합의 기초이며 이를 통해 중추종단의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남해 망운암 중창불사 회향



남해 망운산 망운암(주지 석각은 9월 9일 사부대중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창불사를 회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석각 스님은 "미타의 신행도량 망운암에서 생계조실 교산 스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중창불사를 회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선(禪)문화센터 개원식 개최



부산 선(禪)문화센터(대표 부주)가 9월 9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부주 스님은 "생황과 선이 하나가 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개원취지를 밝혔다. 선문화센터는 앞으로 정기법회와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롯데 이대호 선수 군포교 홍보대사 위촉

조계종 군포특별교구교구장 임민은 9월 11일 잠실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이대호 선수를 군포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임민 스님은 "이대호 선수의 뛰어난 활약으로 군포교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주일 기자



김주일 기자

인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9월 12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열린 제93회 정해년 하안거 해제식에서 부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원 스님(인천 황룡사 주지) = 총무부장 △윤암 스님(포항 황해사 주지) = 재무부장 △경천 스님(대전 광수사 주지) = 사회부장 △예체 스님(부산 삼광사 주지) = 규장부장

부고

△보국불교 염불종 종정 금해당 청봉 대중사(사건)가 9월 11일 오후 11시 30분 원적에 들었다. 청봉 스님의 영결식은 9월 17일 보국불교 염불종 총본종 총본사 대전 원광사에서 불행했다. (042)282-6936 △분사 박재완 사진기자의 부친 박선우옹이 9월 1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장지는 부평 화장터다.



고침

지난 645호 '일주문'에 실린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의 기사 중 스님의 사진이 잘못 게재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허운 스님께 사과 드립니다. 하성이 기자

“청소년기 교육이 평생을 좌우”

부산 푸루나 김진성 신임 회장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마음에 심어준 불교는 저에게 삶의 지표이자 교육의 근본이 되어 진실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더욱 매진할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할 것입니다."



하성이 기자

“불교 가르침 외로움 극복에 큰 힘”

故 윤이상 선생 부인 이수자씨

"현 정부에서 초청해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전 윤이상 선생이 남긴 유산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것이 진정한 예술적 명예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래하며 마음과 정을 붙이는 것이 먼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씨는 1967년 동백림사건 이후 남편의 명예회복과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벼룩지택과 평양 윤이상음악연구소에서 지내며 한국 방문을 미뤘었다.

9월 11일 서울 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故 윤이상(1917~1995) 선생의 부인 이수자(80·사진)씨는 "40년 만에 고향땅을 밟아 기쁘다. 윤이상 선생이 살아 있어서 함께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며 "하지만 이번 방문은 선생 때문에 왔고 그분의 영광과 함께 온 것으로 생각하고"고 강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정부가 요청하고 싶은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수자씨는 "예술가 특히 작곡가는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이 가장 큰 명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150여곡 되는 선생의 작품을 연주하며 그분의 정신과 혼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정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한국이 낯설어 앞으로 자주 왕

이씨는 10월 3일까지 국내에 머물며 윤이상 선생의 고향인 통영 등을 비롯해 '2007윤이상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리는 윤이상음악상 시상식에 참가한 뒤 평양에서 열리는 윤이상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수자씨는 9월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윤이상 선생이 돌아가신 후 몇 년간 정말 힘들었는데 그 당시 많은 힘이 돼 주었던 불교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선조 때부터 집안의 종교가 불교여서인지 독일에서 자라 현대 기독교식 교육을 받았지만 원지 기독교가 멀게 느껴져 40여년동안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외로움을 극복해 왔다"고 불교에 대한 소회를 피력했다.

글=김주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2차 연수교육

귀의삼보하옵고, 불타의 해명을 이어받아 신도포교와 사찰불사를 위해 정진하시는 영산재보존회 회원 여러분들의 법체정안하심과 사찰의 무궁한 발전을 삼보전에 기원 드립니다. 금번 영산재보존회에서는 2008년도 영산재 시연을 통해 본 영산재를 세계문화유산(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산재보존회제 2차 연수교육을 하오니 보존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연수교육 일정 및 대상

Table with 2 columns: 대상 (대상) and 일정 (일정). Rows include 준회원 (2007년 10월 5일, 6일) and 전수생/이수생 (2007년 10월 12일, 13일).

- 2. 연수교육 장소: 봉원사
3. 연수교육비: 10만원
4. 특별강의: 심만춘 스님 / 김법현 스님 / 홍윤식 교수님 / 최이승 교수님
5. 문의: 봉원사 총무원 02)392-3007~8
금번 연수교육은 2008년 영산재 시연 번주(총명) 및 국내외 영산재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조환우 연수원장 이기봉

2007학년도 2학기

교육부 평가인정 대학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학위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경험이 학점화되어 학점은행영분부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어 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전공 분야의 35학점 이수로 또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평생교육의 시대! 취미와 함께 학점 취득까지... www.dongbang.ac.kr

- 문인화(3학점): 조선시대 선비정신과 현대회화의 조형성을 점목시켜 21세기 한국현대문인화 화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스포츠댄스(3학점): 음악을 동반한 유연한 운동인 스포츠댄스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시키며 댄스 스포츠의 기초적 실기를 습득하고, 이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기초동양화(3학점): 모필의 전통적 활용방법을 시군자를 통해 심도있게 숙지하여 대상이 가지는 물성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도록 한다.
공예기법과 실험(3학점): 문화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토대위에 다양하게 공예기법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데 수업목적이 있고, 더불어 일개 공예기법이 해당 예술단체나 문화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불교학개론(3학점):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이해는 깨달음에 이르는 이정표로 이를 익힘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르는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자 함이 본 강의의 목표이다.
인공지능의 이론(3학점): 지능적인 컴퓨터를 만들기 위하여 지식의 습득, 표현 방법, 검색방법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한 기본원리를 습득하고, 정보처리의 지능적인 방법에 관하여 교수한다.
명상과 단전호흡(3학점): 호흡과 관련된 몸, 마음, 현상을 관찰하는 다양한 방식의 호흡명상법을 익혀서 스트레스 받는 일상의 생활에서도 수련하게 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수 있게 함이 강의의 목표이다.
영어(3학점): 신문과 여러 인쇄물, 인터넷과 같은 넓은 범위의 자료를 통해 독서 기술, 어휘, 언어분석, 생각하게 하는 토론, 쓰기 및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2007년 하반기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부터 승인받은 학점은행 평가인증목표로 배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 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에 문 두드리겠습니다.
등록기간: 2007년10월 06일(토)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처: 동방대학원대학교 1층 문화교육원
개강일자: 2007년10월 08일(월) \*일부과목 이미 개강(문의 후 등록요양)
문의전화: 02)745-8053, 953-3500
학교 소재지: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